



한일 장관회의 시기 및 의제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음

<보도 주요내용>

4.7.(일) 머니투데이 「내달 ‘한일중 정상회의’ 가시화... 경제통상 공조 점점 나선다」에서는 이번달 넷째 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사이토 겐 경제산업성 대신과 면담하여,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및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 방안 점검에 나설 전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>

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일 및 한일 장관회의의 시기 및 의제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담당 부서	통상협력국 동북아통상과	책임자	과 장	주원석 (044-203-5690)
		담당자	사무관	김민섭 (044-203-5677)